

소외이웃 찾아가는 '복지기동대·행복버스' 복지 사각 해소



코로나19 극복 선도 주목 받은 전남 정책

<중> 촘촘한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기동대원 4660명, 이웃 불편 해결 전남 대표 복지 브랜드 자리매김 행복버스, 도서지역 의료 서비스 전국 첫 소상공인 지원 신속심사도

※ 3년 4개월여 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전남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투입했다. 복지기동대는 동

네 이웃에게 발생한 어려움과 불편 사항을 가장 잘 아는 이웃이 나서서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동네 안전망으로, 전국 최초로 출범한 민간 합동 자원봉사 조직이다. 기동대원 대부분이 공무원, 이장·통장, 집배원, 전기·가스·수도·보일러 기사 등 생활 불편 해결 전문가로, 전남 22개 시·군 297개 모든 읍·면·동에 만들어졌다. 급격한 고령화를, 높은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수급자 비율, 도서와 오지가 많은 지역 사정을 감안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팔을 걷어붙이고 추진한 공약 사업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한 번 쓰러지면 회복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먼저 덮쳤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가격이 경증 뛰고 품귀 사태가 벌어졌을 때, 복지관과 경로당이 문을 닫고 노인 프로그램과 급식마저 중단됐다. 또 공공 일자리가 사라지고 취약계층의 대면 복지 서비스가 중단돼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코로나19 공포에서 더 큰 고통과 싸워

나야 했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50% 이하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5.7%)도 전국 평균(4.7%)보다 높다. 섬과 오지가 많고 전기·수도·보일러 등을 수리·수선하기 위한 생활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다, 17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될 정도로 필수의료 기반도 취약하다. <복지기동대·행복버스'로 소외계층 복지 두텁게=전남도도가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3년 4개월 여간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 안전망 확충에 공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취약계층이 많은 전남의 복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전남의 대표 정책이 '우리동네 복지 기동대'다. 지난 2019년 출범한 뒤 현재 319개 복지 기동대에 활동중인 기동대원원 4660명. 취약계층을 찾아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해주고 위기가구를

찾아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활동 등으로 전남의 대표 '복지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민선 8기까지 16만 6000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하겠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다.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도 이동식 임시 선별검사소 역할을 하며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섬과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보건·복지 취약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의료 서비스를 펼쳐 전남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운영한 '전남행복버스'는 1만 2700건의 코로나 선별검사를 하고 총 124개 마을을 방문해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남도는 여기에 의료진이 탑승해 이동 진료를 보는 건강버스(2대), 심리상담 등을 돕는 마음버스(3대) 등도 확대 운영중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 지원에도 총력=개점휴업 상태로 버티다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 다중이용시설 영업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

직, 일용직 노동자, 단기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도 베풀 필요로 내몰리면서 힘든 시기를 버텨내야 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1만 4600여개 업체에 4031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신속심사제를 도입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는가 하면, 5679개업체에 1504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2021년에는 김영록 지사가 전세버스 기사 등 11개 취약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최초로 요청,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등을 포함시켜 지원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수산물 생산자들을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배송사업을 도입하고, 양식이 어려워 해결하기 위한 '드라이브 스루' 판매 아이디어를 고안해 진행하기도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세계인권도시포럼' 빈곤·불평등 논의 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광주시 통합돌봄 정책 등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구 위기 ‘김대중 평화주의’로 극복하자”

김영록 지사, 김대중 평화회의 개막 연설... 오늘까지 학술행사

김영록 전남지사는 5일 “기후위기와 강대국의 패권다툼, 사회적 차별과 양극화, 인간소의 등 ‘전지구적 위기’를 전라도 정신을 근간으로 상생과 공존,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김대중 평화주의’로 극복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신안 씨얼리조트에서 열린 2023 김대중 평화회의 개막연설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은 깊은 통찰과 혜안으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빛나는 게이트웨이’가 돼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김대중 평화회의는 전 지구적 위기는 인류 모두에게서 비롯된 공동의 책임으로, 세계인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지구적 책임과 지구적 평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김 지사는 개막연설에서 위기 극복의 단초로 특정 지역이나 국가, 시대, 이념을 넘어 동서고금의

보편적 가치 위에 세워진 철학이자 사상인 ‘김대중 평화주의’를 제시했다. ‘김대중 평화주의’는 전라도에서 면면히 흘러온 문화와 정신이 근간이다. 전통적으로 중시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 사랑, 대동정신, 이순신 장군이 ‘약물호남 시무국가’로 강조한 국난 극복 의지 등 ‘전라도 정신’에서 비롯됐다는 게 김영록 지사의 주장이다. 김대중 정신 계승·발전 위한 전남도의 노력도 소개했다. ‘청년 김대중’을 양성하는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2024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고향 신안 하의도에 동복아 평화의 섬지가 될 ‘한반도 평화의 숲’을 조성하며, 2025년 목표 삼학도에 김대중 세계평화공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2023년 김대중 평화회의는 학술회의 형태로 6일까지 계속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中企 최고 기술인 찾습니다

이달까지 기술장 공모...제조업 분야 품질·공정 개선 실적 등 평가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우수 기술인을 대상으로 ‘2023년 광주시 기술장’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 신기술 개발 및 품질관리, 제안실적이 우수하거나 공정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불량률 절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술인이다. 각 기업과 업종별 협의회 등에서 추천서를 받아 접수하면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5명 이내의 기술장을 선정한다. 평가는 기술자격 취득, 기술제안 활동 등 개인 역량과 품질 및 공정 개선 활동을 통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선정된 기술장에 대해서는

기술장패와 함께 분기별 50만원씩, 3년간 총 6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기술장 추천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에서 제출서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창업진흥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윤미라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우수 기술인을 선발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허와 실 가린다

시, 10~30일 감사

광주시가 연간 140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무 전반을 감사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오는 10~30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무와 관련해 특정 감사를 한다. 지난 7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적 사항에 따른 조치다. 당시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경영평가, 정산검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위원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규정·지침 이행 실태와 함께 재정지원금 집행·정산이 적정한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표준 운송원가 산정, 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서비스 평가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광주에서는 10개 업체가 101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999대를 운행하는데 운송 수입이 원가에 못미치면 적자를 광주시에서 보전한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733억원, 2020년 1189억원, 2021년 1221억원, 지난해 1393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는 지원액이 1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철거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식소,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